

특별기획

지평선축제 체험프로그램 공모

김제시, 오는 10일까지 생활공예체험·쌀 체험마당 대상

대한민국 최초 4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된 김제지평선축제가 올해로 18회를 이어오며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체험프로그램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농경문화 콘텐츠의 집대성이라 말할 수 있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족, 연인, 단체 등 다양한 방문객이 매년 축제장을 찾고 있으며 금년 체험프로그램 공모는 농경문화와 부합하면서 가

족 어린이 청소년 등이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 중 생활공예체험, 쌀(보리)체험마당을 공모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전은 공모일(5.18일) 이전 주민등록(사업자등록) 주소지가 김제시인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6월 10일까지 제안서(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게재) 1부, 완성품 1점,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1부를 우편접수(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지평선축제기획단) 또는

직접 방문접수(김제시의회 3층 김제시청 지평선축제기획단)하여야 한다.

김제시 축제담당은 "전년도에 운영한 체험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의 호응이 매우 높아 금년에도 실시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대표축제 위상에 걸맞는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시민·단체의 축제 참여도를 높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모잠비크 고위공무원 연수생

10명 정읍농기센터 방문

모잠비크의 고위 공무원 농업 연수생 10명이 한국의 선진 영농기술 연수를 위해 지난 1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다.

연수생들은 이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농민 지원 서비스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청취하고 조직 배양실과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지역농업개발시험 연구포 등을 견학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 배양실과 토양 분석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자국에서 직접 조직배양을 통해 우수한 감자품종을 육성하면 식량자급율을 높일 수 있겠다며 조직 배양실에 관심을 보였고 다양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농가에 임대해 주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했다.

에폰소 에폰소 네어(Afonso Afonso Nair) 모잠비크 농업부 농업지도국 단장은 "영농기술연수를 통해 얻은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모잠비크의 열악한 농업현장에 적용, 빈곤을 해소하고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농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희망복지지원단 홍보

부안군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부안군 2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감·교원 등 34명을 대상으로 열린 드림스타트 주요업무 설명회에서 희망복지지원단 홍보물을 배부하고 적극 홍보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위기에 처한 대상자정을 찾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주민행복지원실 희망나눔팀 직원 3명과 통합사회복지사 3명 등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행사장을 찾아 희망복지지원단 홍보하고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찾고 알려주는 복지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보건소, 구강보건 '우수' 선정

김제시보건소(소장 박재민)는 제 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노인복지(틀니)사업, 어린이충치예방사업, 통합구강보건사업,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등 꾸준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추진으로 김제시가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이루었다.

김제시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토대로 구강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경로당 44개소를 대상으로 노년기 구강관리법과 불소도포, 비관염치실천을 위한 생활태도교육 등 구강건강증진 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하는 어르신들은 노년에 이를수록 구강건강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며 바른양치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은 15일 간격으로 산란·서식 개체수 확인과 서식환경 등을 조사해 주꾸미 산란·서식장을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부안군, 주꾸미 산란·서식장 시범 조성

부안군이 자원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서식장을 시범 조성했다.

부안군은 격포어촌계와 함께 주꾸미 자원 회복 및 증대를 위해 최근 입수도 및 형태성 연안해역 약 200ha 규모에 3만여개의 패류껍질을 활용한 주꾸미 산란·서식장을 시범 조성했다. 봄철 주꾸미 산란기를 비롯한 연중

조업과 남획으로 산란기 앞서는 물론 어린 주꾸미까지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있어 최근 전국적으로 주꾸미 어획량이 급속히 감소해 어민들은 자란에 비해 이른 시기에 주꾸미 어구를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이번에 조성된 산란·서식장에서 15일 간격으로 산란·서식 개체수 확인과 서식환경 등을 조사해 주꾸미 산란·서식장을 확

대 조성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주꾸미 자원 회복·증진을 위해서는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수산자원조사 확대, 조업 어구 개수 규제가 필요하다"며 "어민들과 낚시객은 물론 어촌계 차원에서 높은 수익보다는 적정 어업을 통해 자원을 회복시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교월동, 농번기 맞아 파수농가 일손 도와

김제시 교월동(동장 박상문)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일 동장을 비롯한 직원 10여명이 월봉동의 한 파수농가를 찾아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돕고 농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손돕기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부족한 농촌 들녘의 일손을 조

금이나가 덜어드리고 농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조금은 이색적인 패션 포루트(Passion Fruit)라는 이열대 과수의 '꽃 수정작업' 등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으며,

처음으로 접해보는 작업이니만큼 농가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은 신경을 집중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농번기에 지속적으로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동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복숭아순나방은 1년에 4회 정도 발생하는데 1세대는 4월 중순에서 5월 하순까지, 2세대는 6월 상순, 3세대는 7월 하순, 4세대는 8월 하순에 걸쳐 발생한다.

복숭아순나방 2차 공동방제 당부

정읍농기센터, 과수 피해 예방 위해 6~8일까지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복숭아순나방 공동방제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복숭아순나방은 나비목 잎말이나방과로 배와 사과, 복숭아, 체리 등 많은 과수의 어린 순과 과실을 공격하는 해충이다. 작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개체 수가 급속하게 늘어 과실 수확량 감소를 초래한다.

복숭아순나방은 1년에 4회 정도 발생하는데 1세대는 4월 중순에서 5월 하순까지, 2세대는 6월 상순, 3세대는 7월 하순, 4세대는 8월 하순에 걸쳐 발생한다.

복숭아순나방의 방제 적기인 발생 최성기(가장영성하고 한창 발생할 때)는 3월 1일부터 관측된 일평균온도에서 8°C를 뺀 누적 값이 214가 되는 시기가 1세대 방제

적기(정읍지역 4.28)이며, 660이 되는 시기인 6월 6일부터 8일이 이번 방제적기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술센터는 사과와 배, 복숭아, 체리 농업인들에게 2세대 방제적기 예정일을 휴대전화 문자로 미리 발송, 복숭아순나방을 같은 시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센터는 "현재까지 정읍지역 복숭아순나방을 예찰한 결과 개체 수가 3월부터 4월 말까지 증가했고 1세대 공동방제(4월28일) 후 줄어들었다가 다시 5월 상순부터 5월 말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3세대와 4세대 발생 최성기 예정일을 미리 판단하여 과수재배농가에 대한 홍보지도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온천관광지개발 토지보상 시작

김제시는 지난 5월부터 김제온천관광지 개발에 따른 본격 토지보상에 들어갔다.

이번 토지보상은 총 25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159필지 288,064㎡중 16필지 74,764㎡를 보상하며 잔여 토지는 2017년 4월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투자가 없어 방황하던 김제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 이번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온천관광지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2017년 4월부터는 내부개발도 시작되어 지역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김제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지난 2013년 2월 사업을 제안하여 총533,453㎡ 면적에 대종골포장(9홀), 관광호텔, 관광레전, 스키체합장, 안벽등반장, 다목적운동장 등을 조성하여 휴양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가족형 복합테마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투자가 뚜렷하여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것이며 2019년 사업이 완료되면 낙후되었던 김제온천관광지가 새롭게 태어나 김제시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국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강산 생주
Premium Ochi Wine

GIFT SET 1.0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0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0 | 750ml 1ea/12%

GIFT SET 4.0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0 | 375ml 5ea/13%

GIFT SET 6.0 | 500ml 청봉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0 | 375ml 2ea/13%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Tel : 063-564-0900
www.gangsanwine.com